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239-275
<https://doi.org/10.29212/mh.2026..140.2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1

隋·唐의 卑沙城 점령과 그 의미

- 비사성의 전략적 위치 분석을 중심으로 -

최진열 | 공주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평양성 공격 명령과 비사성 점령
 3. 비사성의 위치
 - 가. 여순구와 대흑산의 전략적 위치
 - 나. 비사성의 입지
 4. 비사성과 수·당의 병참 문제
 - 가. 614년 수의 비사성 점령과 군량 보급
 - 나. 645년 당의 비사성 점령과 군량 보급
 5. 결론

초 록 이 논문은 수나라와 당나라가 비사성을 공격한 이유와 전략적 가치를 규명한 글이다.

조선 후기 사신들의 기행문을 검토한 결과 산둥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라오둥반도에 이르러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여순구였지만,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의 방어시설이 없었다. 학계에서 비사성으로 비정한 대흑산산성이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군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문헌에서 비사성이라고 기록한 요하 하류, 즉 현재의 라오닝성 하이청시 일대가 수와 당이 비사성을 점령한 전황과도 부합한다.

수나라가 612년부터 3년 동안 농번기마다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는 수나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군량 공급에도 불리했다. 614년 내호아의 비사성 점령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수나라군에 군량을 원활히 보급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던 반면 수성전을 벌이던 고구려에 큰 타격이었다.

644년에 군수물자 수송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 태종이 평양성을 공격하기로 계획되었던 장량의 해군에 군량을 싣고 요수 하류에 상륙하라고 작전을 바꾸었고 요수 하류에 상륙한 후에 비사성을 점령하였다. 장량의 해군이 물자 수송 도중 일부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군량을 당나라 육군에 보급할 수 없었던 장량의 부대가 곡물 생산량이 많은 건안성을 공격해야 했지만 실패하였다.

주제어(Key Word) : 고수 전쟁, 고당 전쟁, 비사성, 고구려, 대흑산성, 요령성 해성시, 여순구, 군량의 해상운송, 당나라의 육상 운송 실패

1. 서론

고구려의 비사성¹⁾이 역사의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계기가 614년 고수 전쟁과 645년 고당 전쟁이었다. 현재의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대흑산산성으로 비정된 비사성이 수와 당 해군에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곳을 해군기지로 간주한 선행연구가 내호와 장량이 평양성 대신 비사성을 공격한 전략적 이유를 거의 밝히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비사성이 대흑산산성이라는 통설²⁾과 달리 현재의 랴오닝성 하이청시(海城市),³⁾ 다스차오시(大石橋市) 서

- 1)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본래 비사성을 ‘사비성’으로 표기했으나 책부원귀와 자치통감에서 표기한 ‘비사성’을 삼국사기에서 ‘비사성’으로 표기하면서 명칭이 비사성으로 굳어졌다. 이후 중국 사서에서 ‘사비성’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 변화를 보면 사비성이 적절하지만 국내 표기대로 ‘비사성’으로 표기하며 사료를 번역하거나 번역할 때 ‘사비성’ 또는 ‘사비성(비사성)’으로도 표기한다.
- 2) 本偉, 「金縣大黑山」, 『遼寧大學學報』 1985-1, 1985, 13쪽; 汶漢, 「卑沙城」, 『大連文物』 1987-1, 1987; 張錫彤·王鍾翰·賈敬顏·郭毅生·陳連開,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64쪽; 許明綱, 徐吉洙 옮김, 「대련지구(大連地區)에 있는 4개의 고구려 산성에 대한 소고」, 『高句麗研究』 9, 2000, 396-399쪽(原載 許明綱, 「大連地區高句麗四座山城略考」, 『博物館研究』 1996-1, 1996); 孫德連, 서길수 옮김, 「비사성(卑沙城)」, 『高句麗研究』 9, 2000, 407쪽(原載 孫德連, 「卑沙城」, 『金州博物館館刊』 1990-1, 1990); 여호규,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2000, 166-172쪽; 東潮田中俊明, 동북아역사재단 역,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2008; 윤명철, 「만주에서 고구려에게 길을 묻다」, 대원사, 2011; 우성민, 「中國歷史地圖集에 표기된 高句麗 卑沙城에 대한 檢討」, 『中國學研究』 105, 2016, 157-193쪽; 周運中, 「隋唐五代北方海港與近海航路新考」, 『中國港口博物館館刊專輯』 2018-2(總第7期), 2018, 26오른쪽; 王天姿, 「高句麗遼東安市城建安城研究」, 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2018.5, 28-30쪽. 본고에서 이를 ‘대흑산산성’ 설이라고 칭한다.
- 3) 臧勵和 等著, 『中國古今地名大辭典』,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35, 431쪽.

북의 야오저우촌(耀州村),⁴⁾ 압록강 부근⁵⁾이라는 다양한 설이 있다.⁶⁾ 한편 대흑산산성과 『요사』 이후 비사성으로 기록한 하이청시 모두 비판하고 고고발굴 성과를 재검토하여 비사성의 위치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⁷⁾

필자는 내호아가 614년 비사성을 점령하자 고구려 영양왕이 두려워하여 화친을 청했다는 기사와 장량이 645년 원래의 공격 목표인 평양성 대신 비사성을 점령한 후 건안성으로 진격했던 동선을 분석하여 비사성의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여러 사서 기록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비사성의 대략적인 위치를 비정하고 수와 당의 군대가 비사성을 점령한 이유를 살펴본다.

2장에서 614년 수나라의 해군과 645년 당나라의 해군이 평양성 대신 비사성을 공격했던 기사를 검토한다. 그리고 비사성 공격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3장에서 만주 또는 요동과 관련된 문헌, 조선 후기 사신들의 기행문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비사성의 위치를 검토한 후 그 전략적 가치를 분석한다. 이어서 4장 가절에서 614년 수나라의 병참 문제를 중심으로 비사성 점령의 의의를 재평가한다. 나절에서 645년 당나라 해군 지휘관 장량이 평양성 대신 비사성을 점령한 배경을 군수물자의 운송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본고에서 이를 ‘해성시’ 설이라고 칭한다.

- 4) 魯西奇, 「隋唐五代時期北方沿海港口與近海航路」, 鄭永常 主編, 『東亞海域網絡與港市社會』, 臺北: 里仁書局, 2015, 257-309쪽.
- 5) 王守春, 「卑奢城·卑沙城與金州城的相關歷史地理問題」, 孫進己 主編, 『東北亞歷史地理研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4.
- 6) 국내의 비사성 위치에 대한 연구성과는 여호규, 「요동 지역의 군사방어체계와 천리장성」,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7세기 국제정세와 고구려-수·당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2023, 332-339쪽 참조. 천리장성의 서남쪽 정착지로서 비사성의 위치를 大黑山山城으로 비정하고 발견된 성벽을 천리장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위와 같음, 341-342쪽).
- 7) 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10, 62-63쪽.

2. 평양성 공격 명령과 비사성 점령

비사성이 614년 수나라의 3차 침입 때 처음 등장하였다. 『수서』 「내호아전」을 검토해 보자.

“[대업(大業)] 10년(614)에 병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비사성(卑奢城)에 이르렀다. 고려[고구려-필자]에서 모든 나라 사람이 와서 싸웠으나 [내]호아가 이를 대파하고 1천여 급을 참하였다. 장차 평양으로 가려고 했으나, 고원(영양왕)이 두려워하고 떨며 사신을 보내 반신(叛臣) 곡사정을 데리고 요동성 근처까지 방문하여 표(表)를 올리고 항복을 청하였다.”⁸⁾

위의 인용문에서 수 해군이 비사성을 점령하자 고구려의 영양왕이 두려워하여 수나라에 항복을 청했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비사성이 612년 수나라군이 요수 서쪽의 무려라를 함락한 이후 2년 만에 두 번째로 점령한 고구려 요새였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비사성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 보기 위해 고수 전쟁 당시 수나라의 해군사령관 내호아의 동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호아가 612년에 해군과 육군의 협공 작전을 어기고 단독으로 평양성으로 진격했다가 패하고 후퇴하였다.⁹⁾ 『수서』 「내호아전」에서

8) 『隋書』卷64 「來護兒傳」, 1516쪽, “十年, 又帥師度海, 至卑奢城, 高麗舉國來戰, 護兒大破之, 斬首千餘級. 將趣平壤, 高元震懼, 遣使執叛臣斛斯政, 詣遼東城下, 上表請降.”

9) 『隋書』卷64 「來護兒傳」, 1515-1516쪽, “遼東之役, 護兒率樓船, 指滄海, 入自涿水, 去平壤六十里, 與高麗相遇. 進擊, 大破之, 乘勝直造城下, 破其

그가 다음 해인 613년에 동래군에 머무르다 양현감의 반란을 평정했다고 기록하였다.¹⁰⁾ 「양현감전」에 따르면, 그가 평양성 공격 명령을 받고 동래군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사이에 양현감이 그의 토벌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¹¹⁾ 이는 613년 수 해군의 작전 지역이 원래 평양성이었다는 증거이다.

『책부원귀』 「제왕부」 친정문에 태종의 출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당 태종 정관 18년 시월¹²⁾에 황제가 친히 육군을 지휘하여 요해를 건너려고 하였다. …(중략)… 갑오일(644. 12. 28)에 광록대부 형부상서 윤국공 장량을 사지절 평양도행군 대총관에 임명하고 좌영군장군 무수현백 상하와 노주도독 대국공 좌난당을 부총관에 임명하였다. 분주자사 황국공 염인덕과 미주자사 하전현남 유영, 은청광록대부 행무주자사 장문한, 운휘장군 행중랑장 방효공, 우효위장군 동평군공 정명진을 모두 행군총관에 임명하여 장량의 지휘 아래에 속하게 하고 강·화·영·협의 강한 병졸 4만 명과 장안과 낙양에서 모병한 3천 명, 전함 500척을 이끌고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¹³⁾

郛郭. 於是縱軍大掠, 稍失部伍, 高元弟建武募敢死士五百人邀擊之. 護兒因却, 屯營海浦, 以待期會. 後知宇文述等敗, 遂班師.”

10) 『隋書』卷64 「來護兒傳」, 1516쪽, “明年, 又出滄海道, 師次東萊, 會楊玄感作逆黎陽, 進逼鞏·洛, 護兒勒兵與宇文述等擊破之.”

11) 『隋書』卷70 「楊玄感傳」, 1616쪽, “帝征遼東, 命玄感於黎陽督運. ……時將軍來護兒 以舟師自東萊將入海, 趣平壤城, 軍未發. 玄感無以動眾, 乃遣家奴偽為使者, 從東方來, 謬稱 護兒 失軍期而反. 玄感遂入黎陽縣, 閉城大索男夫. 於是取帆布為牟甲, 署官屬, 皆準開皇之舊. 移書傍郡, 以討 護兒 為名, 各令發兵, 會於倉所.”

12) 본고에서 음력 날짜를 한글로, 양력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13) 『冊府元龜』卷117 「帝王部」親征唐太宗貞觀十八年十月條, 1278쪽, “唐太宗貞觀十八年十月, 帝欲親總六軍, 以度遼海. …… 甲午, 以光祿大夫·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이세민이 장량을 해군총사령관에 해당하는 평양도행군대총관에 임명한 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통전·변방전』 「고구려전」,¹⁴⁾ 『구당서』 「고려전」,¹⁵⁾ 『당회요』,¹⁶⁾ 『신당서』 「고려전」,¹⁷⁾ 『자치통감』¹⁸⁾을 포함한 여섯 사서에서도 당 해군의 공격 지역이 평양성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당 해군이 실제로 공격한 곳이 평양성이 아니라 비사성이었다. 『구당서』와 『신당서』, 『책부원귀』, 『자치통감』에서 사비성(비사성)¹⁹⁾을 점령한 장량이 건안성에서 고구려군과 싸웠다고 기록하였다.²⁰⁾ 한 학자가 장량이 해로로 현재의 다롄시에서 건안성이 있는 랴오둥반도의 서남해안까지 진격했다고 추정하였다.²¹⁾ 그러나 장량이 건안성을 공격한 전략적 의미가 모호하여 어떤 학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신당서』 「고려전」에서 “신라가 여러 차례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오선(吳船) 400척으로 군량을 수송하라고 명령하였고 영주도

刑部尚書·鄖國公張亮為使持節平壤道行軍大總管，以左領軍將軍·武水縣伯常何·瀘州都督·戴國公左難當為副總管，汾州刺史·黃國公冉仁德·眉州刺史·下傳縣男劉英·銀青光祿大夫·行撫州刺史張文翰·雲麾將軍·行中郎將龐孝恭·右驍衛將軍·東平郡公程名振並為行軍總管以隸之，率江淮嶺嶺勁卒四萬，長安·洛陽召募三千，戰艦五百艘，自荊州泛海趣平壤。”

14) 『通典』 卷186 「邊防」 2 高句麗傳, 5016-5017쪽.

15)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2-5323쪽.

16) 『唐會要』 卷95 「高句麗傳」 貞觀十九年條, 2021쪽.

17)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3-6194쪽.

18)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唐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甲午條, 6214쪽.

19) 현재 통용되는 ‘비사성’이라는 명칭이 『책부원귀』와 『자치통감』을 거쳐 『삼국사기』에서 정착되었다. 그러나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사비성이라 표기하였다. 본문에서 원자료대로 표기할 경우 ‘사비성(비사성)’으로 표기한다.

20)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2-5323쪽;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新唐書』 卷94 「張亮傳」, 3829쪽;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唐太宗貞觀十九年六月條, 6227쪽.

21)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92쪽, [그림 7] 645년 전쟁도.

독 장검 등에게 유주도독부와 영주도독부의 병사, 거란·해·말갈 등을 징발하여 나아가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렸다”²²⁾라는 기사를 보면 장량이 지휘할 오선, 즉 강남도에서 항해하는 배를 동원한 목적이 평양성까지의 군량 수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 해군이 평양성이 아닌 비사성을 공격하였다. 장량이 사비성(비사성)을 함락한 후 건안성을 공격한 동선 역시 요동성을 거쳐 안시성을 공격하는 당나라 군대에 군량을 공급하려는 의도였다.²³⁾ 즉 644년 평양성 공격 명령이 중간에 바뀌어 당 해군의 실제 임무가 당 육군에의 군량 공급이었다. 이 문제는 4장 나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두 장수가 비사성으로 공격 목표를 바꾼 이유를 비사성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3장에서 검토한다.

3. 비사성의 위치

가. 여순구와 대흑산의 전략적 위치

『독사방여기요』에서 “여순(旅順)이란 곳이 등주(登州)·내주(萊州)·조선을 오가는 수로의 요충지이다”²⁴⁾라고 기록하여 산둥반도의 등주·내주와 조선, 즉 한반도 사이 해상 항로의 요충지였음을 밝혔다. 1629년(崇禎 2) 명나라를 방문한 신열도가 윤사월 칠일(임술)에 등주를 출발하여 묘도와 타기도, 황성도를 지난²⁵⁾ 조선

22)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쪽, “新羅數請援, 乃下吳船四百柁輸糧, 詔營州都督張儉等發幽·營兵及契丹·奚·靺鞨等出討.”

23)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100-101쪽.

24) 『讀史方輿紀要』 卷37 「山東」 8 遼東都指揮使司·金州衛·三山島條細注, 1719쪽, “旅順者, 登·萊·朝鮮水路津要也.”

25) 『국역 신열도 조천시문견사건계』(신열도 지음, 신로사 옮김, 세종대왕기

사신단의 다음 항로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새벽에 바람의 기세가 순탄하지 않아서 구불구불 철산취(鐵山嘴)를 향하니 뱃사공이 힘을 다해 돛을 기울여서 갔고, 사시(巳時)에 여순구에 이르러 정박하였다.”²⁶⁾

황성도를 지난 신열도 일행이 철산취로 향해하였고 여순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이후 윤사월 구일²⁷⁾과 십일,²⁸⁾ 십일일²⁹⁾에 바람에 막혀 여순구에 머물렀고 십이일에 순풍을 타고 랴오둥반도 남쪽에 있는 평도, 삼산도, 광록도를 지났다.³⁰⁾ 신열도 일행이 사흘 동안 역풍 때문에 여순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랴오둥반도 남해안 가운데 유독 여순구에서만 머문 것을 보면 여순만 일대가 항해와 정박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사방여기요』 여순구관조 제주에서도 확인된다.

“위(衛) 남쪽 120리에 있다. 바다로 운송하는 배가 금주위(金州衛)에 도착하려면 이곳에 이르러 상륙하였다. 여순구 남북 두 성이 있으며 금주위의 중좌천호소(中左千戶所)가 이

넘사업회, 2023) 승정 2년 윤4월 초7일(임술)조, 197쪽, “새벽에 해신제(海神祭)를 지냈다. 미시(未時)에 순풍을 타고 배를 출발하여 모도와 타 기도를 지나 한밤중에 황성도를 지났다.”

26) 위의 책, 승정 2년 윤4월 초8일(계해)조, 197쪽.

27) 위의 책, 승정 2년 윤4월 초9일(갑자)조, 197쪽, “여순구에 머물렀다.”

28) 위의 책, 승정 2년 윤4월 초10일(을축)조, 198쪽, “바람에 막혀서 여순구에 머물렀다.”

29) 위의 책, 승정 2년 윤4월 11일(병인)조, 198쪽, “바람에 막혀서 여순구에 머물렀다. 밤에 큰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30) 위의 책, 승정 2년 윤4월 12일(정묘)조, 198쪽, “질은 안개가 바다를 뒤덮었다. 사시(巳時,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순풍을 타고 배가 출발하여 평도, 삼산도를 지났다. 유시(酉時)에 광록도를 지나 밤새 갔다.”

곳에서 미리 준비하여 막았다.”³¹⁾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여순구관이 해안에 상륙하는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명나라가 두 개의 성을 방어 진지로 구축하였다. 『전요지』 「산천지」 금주위성·여순성조에서도 “남·북 2성이 금주성 남쪽 120리에 있으며 모두 바다 가까이에 위치하였다”³²⁾라고 기록하여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성을 쌓았다고 기록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여순구(旅順口)가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 한반도를 항해하는 배들이 지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산둥반도에서 출항한 배들이 랴오둥반도로 상륙할 때 처음 정박하는 곳이었다. 이런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여순구가 침략하는 수와 당이나 방어에 치중하는 고구려에 중요한 곳이었지만 통설에서 고구려의 군항이라고 주장한 비사성이 이곳에 없었다.³³⁾

비사성으로 지정하는 대흑산산성과 그 앞바다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해 보자. 랴오둥반도 해안 지역에 관한 정보를 조선 사신들이 쓴 조천록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1624년(天啓 4) 조선에서 명나라로 갔던 『조천록』에서 항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정에 풍기가 아주 적당하여 일시에 돛을 올리니 배가 심히 빠르게 달렸다. 여순구(旅順口)와 황성도(皇城島), 철산취(鐵山嘴), 타기도(鼉磯島) 모두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치

31) 『讀史方輿紀要』 卷37 「山東」 8 遼東都指揮使司·金州衛旅順口關條細注, 1720쪽, “衛南百二十里. 海運舟達金州衛者, 至此登岸. 有旅順口南北二城, 金州衛中左千戶所在此備御.”

32) 『全遼志』 卷1 「山川志」 金州衛城旅順城條, 30쪽, “南·北二城, 金州城南一百二十里, 俱臨海.”

33) 大連地區 高句麗 山城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旅順口에 高句麗 방어 시설이 있었다는 지적이 없다(許明綱, 徐吉洙 옮김, 「대련지구(大連地區)에 있는 4개의 고구려 산성에 대한 소고」, 395-405쪽.

니 황연하기가 신령스런 바람을 타고 하늘문에 날아오른 듯 했다. 대개 신승(神僧)을 만난 뒤 풍편이 심히 이로와져 한번 돛을 올리고 만리를 가도 어려움이 없었다. 오후에 진주문(眞珠門)에 들어가니 이곳이 곧 해구(海口)의 문과 같은 것이었다.”³⁴⁾

위의 인용문에서 조선의 평안도 해안에서 여순구, 황성도, 철산취, 타기도, 진주문을 지났다고 기록했으나 대흑산 앞바다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학계에서 비사성으로 비정하는 대흑산산성이 군항이라면, 대흑산 앞바다가 항해의 중간 기착기나 항구 또는 군항의 입지 조건을 지닌 지형이 언급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1628년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된 신열도가 쓴 『조천시문견사건계』의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산해관 길을 경유하게 되면 압강(鴨江, 압록강) 이 북은 전부 적의 소굴이 되었으므로, 금주(金州), 복주(復州), 해주(海州), 개주(蓋州) 연해(沿海)의 길이 모두 아울러 막혀 버렸으니, 형편상 장차 바닷길을 경유하여 피도를 지나 평도에 이르러 여순구, 철산취로 항해야 하는데, 이른바 철산취는 바로 해류(海流)가 모이는 곳입니다. 한 줄기는 천진에서 동쪽으로, 한 줄기는 평도에서 서쪽으로, 한 줄기는 황성에서 북쪽으로 이르러 모두 여기에서 모이는데, 사람을 경악하게 하는 큰 파도가 험악하기 비할 데 없습니다.”³⁵⁾

34) 『조천록』 천계4년 8월 22일 갑진조, 264쪽.

35) 『국역 신열도 조천시문견사건계』 「예부에 공로(貢路)를 바꾸지 말 것을 청하며 올리는 글[呈禮部請勿改貢路文]」조, 210-211쪽.

위의 인용문에서도 여순구가 언급된 반면 대흑산 동남쪽 해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뤼순만에 위치한 여순구와 그 부근에 있는 철산취가 수당 해군이 랴오둥반도를 침략할 때 반드시 지나는 곳이었으므로 고구려군이 육지나 바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고구려의 해군기지나 방어시설이 있어야 했던 곳이었다. 반면 대흑산산성 주변 해안에 조선 사신의 눈에 그러한 전략적 가치가 보이지 않았다. 적 해군의 침략을 막으려면 초동 대처가 필요하지만, 대흑산 앞바다에 고구려의 해군 기지가 있었다면 랴오둥반도의 끝인 여순구 일대로 쳐들어오는 적선을 막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최소한 비사성으로 비정된 대흑산산성이 해군기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

나. 비사성의 입지

역대 요동 지역의 지리지에서 본래 비사성이 대흑산성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기록하였다. 『요사』 「지리지」에서 거란의 해주가 본래 옥저국의 땅이었으며 고구려 때 사비성, 즉 비사성이었고 발해 때 남경 남해부였다고 기록하였다.³⁶⁾ 『대원일통지』,³⁷⁾ 『대명일통지』 권25 산동포정사·요동도지·휘사사·건치연혁·해주위조·세주,³⁸⁾

36) 『遼史』 卷38 「地理志」 2 東京道·海州(南海軍)條, 461-462쪽, “海州, 南海軍, 節度. 本沃沮國地. 高麗爲沙卑城, 唐李世勣嘗攻焉. 渤海號南京南海府. 疊石爲城, 幅員九里, 都督沃·晴·椒三州. 故縣六: 沃沮·鶯巖·龍山·濱海·昇平·靈泉, 皆廢.”

37) 『元一統志』 卷2 遼陽等處行中書省·遼陽路·古蹟·廢澄州條, 188쪽, “本海州南海府沃沮地. □□時卑沙城, 唐李勣攻卑沙城, 即此. 渤海爲南海府, 遼仍之. 金改曰海州. 天德三年以山東有海州, 改爲澄州, 治臨溟縣.”

38) 『大明一統志』 卷25 山東布政司·遼東都指揮使司·建置沿革·海州衛條細注, 27앞쪽, “在都司城南一百二十里. 本蓋牟地. 高麗爲沙卑城, 渤海國爲南海府. 遼爲海州南海軍, 治臨濱縣. 金天德初改爲澄州, 元廢. 本朝洪武九年置衛.”

『요동지』³⁹⁾와 『전요지』,⁴⁰⁾ 『독사방여기요』 권37 「산동」 8 요동도지휘사사·해주위조,⁴¹⁾ 『성경통지』 권100 「고적」 1 봉천부경내군현고적·해성현·해주조 해주⁴²⁾에서도 요하 하류의 해주위가 고구려의 비사성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하류에 옥저와 비사성, 발해의 남해부가 있다는 대목 때문에 『요사』 이하 정사나 지리서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북송 때 쓰인 『신오대사』와 남송 때 편찬된 『거란국지』에서 거란에 생포된 후진 출제 석중귀를 만주 땅으로 유배 보내는 기사에서 발해의 남해부가 요하 하류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두 사서의 자료 내원이 오대십국시대나

39) 『遼東志』 卷1 「地理志」 沿革·海州衛條細注, 6쪽, “在遼陽城南一百二十里. 魏隋以前同. 遼陽本蓋牟地, 高麗為沙卑城, 唐置澄州, 渤海國為南海府. 遼為海州南海軍, 治臨溟縣. 金天德初, 改為澄州. 元屬縣二, 曰析木·曰臨溟. 本朝洪武初, 平遼東. 九年, 革州縣, 設衛治屬所五.”

40) 『全遼志』 卷1 「沿革志」 海州衛條, 44쪽, “在遼陽城南一百二十里, 分守海蓋參將駐札於內. 魏隋以前同遼陽, 本蓋牟地. 高麗為沙卑城. 唐置澄州. 渤海為南海府. 遼為海州南海軍, 治臨溟縣. 金天德初, 改為澄州. 元屬縣二, 曰析木, 曰臨溟. 本朝洪武初, 平遼東. 九年, 革州縣設衛治, 領五千戶所.”

41) 『讀史方輿紀要』 卷37 「山東」 8 遼東都指揮使司·海州衛條, 1709쪽, “秦漢時遼東郡地. 後魏末, 為沃沮國地. 高麗為沙卑城. 渤海號南京南海府. 遼為海州南海郡. 金曰澄州. 元廢. 明洪武九年置今衛.” 海州衛가 沃沮, 沙卑城(卑沙城)이 있었다는 『讀史方輿紀要』 기사 때문에 이 책의 사료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讀史方輿紀要』가 작자 미상의 『水經注』, 顧炎武의 『天下郡國利病書』와 더불어 중국 地理書의 3大書로 불릴 정도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탁용국, 『中國史學史大要』, 탐구당, 1986, 166-167쪽). 중국에서도 『讀史方輿紀要』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가 많다. 『讀史方輿紀要』에 관한 중국 선행연구는 張文華, 「百年來顧祖禹及《讀史方輿紀要》研究概述」, 『淮陰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48, 2026, 176-181쪽 참조.

42) 『盛京通志』 卷100 「古蹟」 1 奉天府境內郡縣古蹟·海城縣·海州條細注, 9b-10a쪽(1494쪽), “海州南海軍本沃沮國地, 高麗為沙卑城, 亦曰卑沙城, 或訛為卑奢城. 自登·萊海道趨高麗之平壤, 必先出此. 隋書: 大業十年, 來護兒出海道, 至卑奢城, 敗高麗, 將趨平壤, 高麗懼而請降. 新唐書: 貞觀十九年伐高麗, 張亮·程名振帥舟師自東萊度海襲沙卑城, 其城四面懸絕, 惟西門可上. 唐兵攻拔之, 耀兵鴨綠江上. 渤海號南京南海府·疊石為城, 幅員九里, 都督沃·疇·椒三州. 遼置海州, 南海軍領耀·濱二州.”

북송시대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므로 당시 중국인들이 발해 멸망 전후부터 남해부가 요하 하류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⁴³⁾ 『대원일통지』가 『요양도지(遼陽圖志)』를 포함한 당·송·금·원이 편찬한 지방지를 자료로 작성하여⁴⁴⁾ 원대 중앙과 지방 정부가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실었으므로 비사성 기사도 믿을 수 있다. 『요동지』가 1418년(永樂 16) 『천하군현지서(天下郡縣志書)』를 편찬하기 위해 편찬한 요동·요서 지역의 지리지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편찬한 지리서이다. 『요동지』에서 『요사』를 포함한 정사뿐만 아니라 몽골(원)의 『대원일통지』 편찬에 사용한 요동 지역의 지방지도 포함되었다.⁴⁵⁾ 『요사』 「지리지」와 『대원일통지』에 실린 비사성 관련 기사가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동지』에도 비사성이 해주위에 있었다는 기사가 실린 것이다. 『요동지』의 원고를 수합하여 쓴 『천하군현지서』를 토대로 쓴 『대명일통지』도 마찬가지이다.⁴⁶⁾ 비사성이 요하 하류의 해주 또는 해주위에 있다고 기록한 『요사』, 『대원일통지』, 『요동지』, 『전요지』, 『대명일통지』, 『독사방여기요』, 『성경통지』가 사료 비판과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 아래 편찬한 관찬 사료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통설과 다르다고 『요사』 「지리지」 이하 중국 지리지의 사료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요동지』 「지리지」 연혁·금주위조세주⁴⁷⁾와 『전요지』

43) 최진열, 「고구려-수당 전쟁과 고구려의 요서-7세기 고구려의 요서 영유와 요서 지역의 전략적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31, 2026, 223쪽, 주) 25.

44) 陳蔚松, 「元明清一統志館及其修志成就」, 『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1-3, 2002, 94원쪽.

45) 劉琳琳, 「明代《遼東志》與《全遼志》述論」, 遼寧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5, 4-5쪽 및 33쪽.

46) 陳蔚松, 「元明清一統志館及其修志成就」, 94원쪽-95원쪽.

47) 『遼東志』 卷1 「地理志」 沿革·金州衛條細注, 7쪽, “在遼陽城南六百里. 唐

권1 「연혁지」 금주위조⁴⁸⁾에서 금주위에 비사성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요동지』 권1 「지리지」 고적·대흑산성조 세주의 기사를 검토해보자.

“금주성 동쪽 15리에 있는 산꼭대기에 고성(高城)이 있었는데, 봉황산의 왼쪽이며 사각형으로 약 2리이고 안에 우물 두 개가 있으며 사면이 험준하고 남쪽에 한 개의 문이 있어 오를 수 있다. 어느 시대에 쌓았는지 알 수 없다. 당 장량이 주사(海軍)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사비성을 공격했으며, 남부(男婦) 8천 구를 사로잡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⁴⁹⁾

위의 인용문에서 장량이 공격했다는 대목이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사와 일치한다. 그러나 남쪽 문으로 성벽을 오를 수 있다는 밑줄 친 부분이 비사성에 서문만 있다는 『책부원귀』 권117 「제왕부」 친정⁵⁰⁾과 권396 「장수부」 57 용감3·왕문탁조,⁵¹⁾ 권420

以前同海州舊有沙卑城，高宗平高麗，置州，五季淪於契丹，遼亡歸金。元置萬戶府。本朝洪武四年，劉益歸附設衛領六千戶所。二十年，調所領中左所於旅順口。二十一年，調後所於義州。”

48) 『全遼志』 卷1 「沿革志」 金州衛條，45쪽，“在遼陽城南六百里，金復守備駐札於內。唐以前同海州。舊有沙卑城。高宗平高麗，置州。五季淪於契丹。遼亡，歸金。元置萬戶府。本朝洪武四年，劉益歸附，設衛，領六千戶所。二十年，調所領中左所於旅順口。二十一年，調後所於義州。”

49) 『遼東志』 卷1 「地理志」 古跡·大黑山城條細注，46쪽，“金城東十五里，山頂有古城，在鳳凰山之左，方約二里，內有二井，四面懸絕，惟南一門可上，不知何代壘砌。唐張亮帥舟師渡海，攻沙卑城，獲男婦八千口，即此。”

50)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1280쪽，“五月乙巳，張亮亞將程名振拔卑沙城。其城四面懸絕，唯西門有攻之勢。名振督軍夜襲之，副總管王文度先登，士卒繼進，城中潰散，虜其男女八千口，分遣總管丘孝忠·古神感耀兵於鴨渌水。”

51) 『冊府元龜』 卷396 「將帥部」 57 勇敢3王文度條，4471쪽，“王文度，為征遼副總管。至卑沙城，其城四面懸絕，唯西門有攻取之勢，亞將程名振督軍

「장수부」⁸¹ 엄습·장량조,⁵²⁾ 『자치통감』 권197 「당기」 13 당태종 정관십구년사월조⁵³⁾ 기사와 다르다.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사년조에서도 “장량이 주사(舟師)를 이끌고 동래에서 바다를 건너 비사성을 습격하였다. 그 성의 사면이 험준하고 서문으로만 올라갈 수 있었다. 정명진이 병사들을 이끌고 밤에 서문에 이르렀고 부총관 왕대탁이 먼저 성에 올라갔다”⁵⁴⁾라고 기록하였다. 즉 대흑산성의 성문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문에 있었다는 『책부원귀』와 『자초통감』, 『삼국사기』의 기록과 다르므로 고구려의 비사성이라는 비정을 믿기 어렵다.⁵⁵⁾

그런데 『요동지』와 『전요지』에서 비사성을 해주위와 금주위의 대흑산성이라는 두 곳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요하 하류의 해주 또는 해주위 지역이 명나라 당시의 지형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하 하류의 삼각주 해안선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확장되었다.⁵⁶⁾ 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자.

夜襲之，文度先登，士卒繼進，城中潰散，遂拔其城。”

52) 『冊府元龜』 卷420 「將帥部」 81 掩襲·張亮條, 4771쪽, “張亮為滄海道行軍大總管。從太宗征高麗，與亞將程名振拔卑沙城。其城四面懸絕，惟西門有攻取之勢，名振督軍夜襲之。副總管王文度先登，士卒繼進，城中潰散，虜其男女八千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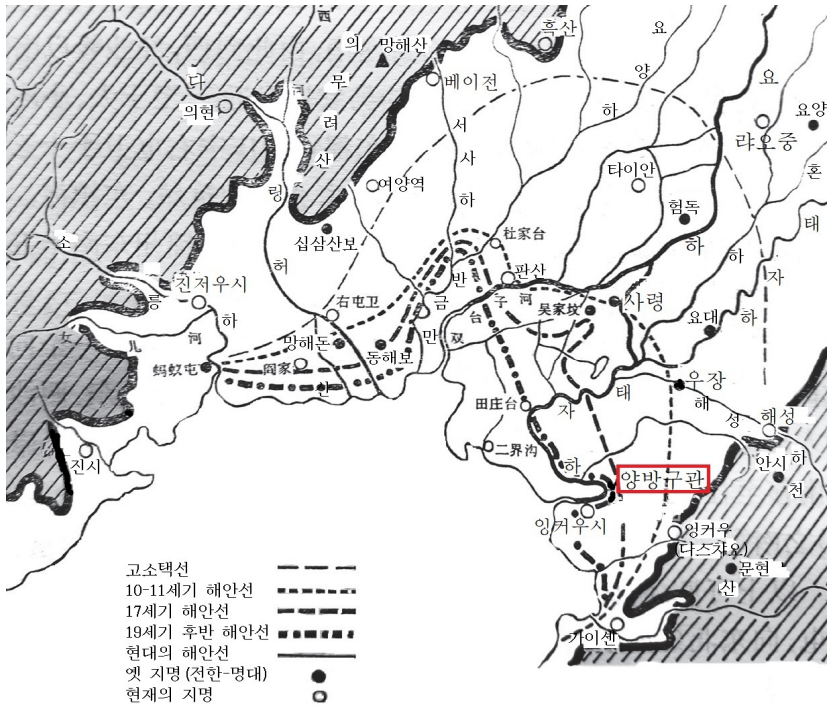
53)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唐太宗貞觀十九年四月條, 6220쪽, “張亮帥舟師自東萊渡海，襲卑沙城，其城四面懸絕，惟西門可上。程名振引兵夜至，副總管王大度先登，五月己巳，拔之，獲男女八千口。分遣總管丘孝忠等曜兵於鴨綠水。”

54)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9 寶藏王四年條, “張亮帥舟師，自東萊度海，襲卑沙城。城四面懸絕，惟西門可上，程名振引兵夜至，副總管王大度先登。”

55) 喬鳳岐도 필자와 같은 견해이다(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62-63쪽).

56) 王育民, 『中國歷史地理概論』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7, 159-161쪽.

〈지도 1〉 요하 하류 해안선의 변천⁵⁷⁾



〈지도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해안선이 현재의 랴오중시(遼中市) 앞에 있었으나 10-11세기에 현재의 하이청(海城)시와 사령(沙嶺), 우장(牛莊)이 해안선 바로 앞에 위치하였다. 이후 17세기에 서남쪽으로 해안선이 확장되었고 이때 염전이 위치한 양방구관(梁房口關)이 바닷가 가까이 위치하였다.⁵⁸⁾ 19세기에 해안

57) 출전: 위와 같음, 160쪽, 圖4-2 遼河及大小凌河三角洲的變遷 지도를 필자 수정.

58) 『明史』 「地理志」에서 蓋州衛의 서북쪽에 梁房口關이 있었고, 바다로 나가는 배가 梁房口關에서 遼河로 들어갔고 곁에 鹽場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明史』 卷41 「地理志」 2 山東·遼東都指揮使司·蓋州衛條, 953쪽, “又西北有梁房口關, 海運之舟由此入遼河, 旁有鹽場.”). 이는 梁房口關이

선이 서남쪽으로 팽창하자 양방구관이 육지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현재의 해안선을 보면 비사성이 있었다고 요대 이후 지리지의 기록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해안선의 위치를 두고 비사성으로 비정되는 랴오닝성 하이청시의 위치를 대조하면 이 지역이 해안에서 가까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담기양주편의 『중국역사지도집』 제5책(수당오대십국시기) 지도에서도 현재의 해안선보다 동북쪽으로 후퇴한 당시 해안선을 그렸다.⁵⁹⁾ 따라서 비사성이 현재의 하이청시 일대라는 『요사』, 『대원일통지』, 『대명일통지』, 『요동지』, 『전요지』, 『독사방여기요』, 『성경통지』의 기록이 터무니없다고 매도할 수 없다. 특히 『성경통지』에서 『요동지』와 『전요지』에 기록된 ‘대흑산산성설’을 기각하고 ‘해성시설’을 채택하였다. 이는 요하 삼각주의 확장과 해안선이 서남쪽으로 확대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전의 사서를 있는 그대로 베끼지 않은 것이다. 『성경통지』의 찬자들이 『요동지』와 『전요지』에서 조금 생산이 가능한 해안 지역이라고 서술한 양방구관이 청대의 현실과 다른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따라서 명대 해주위, 즉 현재의 해성시 일대에 사비성(비사성)이 있었다는 역대 사서와 지리지의 기록이 옳다고 생각하여 대흑산성에 사비성이 있었다는 『요동지』와 『전요지』 기사를 오류라고 간주하고 현재의 하이청시에 있다는 기사만 기록하였다. 『책부원귀』와 『자치통감』에 비사성을 서문으로만 공격할 수 있다고 기록했지만⁶⁰⁾ 현재 비사성으로 비정되는 대흑산산성이 남문만 있기 때

해안선과 가까운 지역이었음을 시사한다.

59)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五冊(隋唐五代十國時期),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82, 50-51쪽, 河北道北部.

60)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쪽, “五月乙巳, 張亮亞將程名振拔卑沙城. 其城四面懸絕, 唯西門有攻之勢.”;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唐太宗貞觀十九年四月條, 6220쪽, “張亮帥舟師自東萊渡海, 襲卑沙城, 其城四面懸絕, 惟西門可上.”

문에 문헌과 다름을 지적했지만 서남쪽 문(西南門)으로 해석하면 아마도 금주의 대흑산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⁶¹⁾ 당시 당나라 군대가 지남거 등 방향을 판별하는 기구를 가지고 갔을 것이며 해의 위치로 방향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서문과 남문을 뚜렷이 구별하였다. 『성경통지』의 찬자들도 대흑산산성의 성문이 서문이 아니었으므로 대흑산산성을 비사성으로 보는 견해를 기각하고 요하 하류 해주위에 있었다는 견해를 채택했을 것이다.

4. 비사성과 수·당의 병참 문제

가. 614년 수의 비사성 점령과 군량 보급

2장에서 내호아가 614년 공격 목표가 비사성이었음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 비사성이 학계의 다수설인 현재의 다롄시에 있는 대흑산산성이 아니라 요하 하류인 현재의 하이청시 일대였다는 중국 사서 기록을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내호아의 해군이 비사성으로 공격 지역을 변경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수나라의 행군 및 보급과 관련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시사하는 기록이 『태평환우기』에 있다.

(나) “[대업] 10년(614)에 또 전국의 병사들을 징발했는데 이때 도적이 봉기하여 각 지방이 막혀서 육로가 끊기는 바람에 군대가 대부분 도착할 기일을 놓쳤다. ㄱ) 소수가 요수에 이르렀고 또 기근이 들어서 육군(六軍)이 변갈아 서로 약

61) 周運中, 「隋唐五代北方海港與近海航路新考」, 26오른쪽.

탈하였으며 다시 대부분 질역에 걸려 황룡(黃龍) 이동의 지역부터 해골이 서로 이어지며 머무르는 곳에서 병졸들이 모두 시체를 쌓아 바람과 비를 막았고 죽은 자가 열 가운데 여덟 또는 아홉이었다. ㄴ) 고구려도 역시 방어하는데 곤궁하고 피폐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하고 곡사정을 체포해 보내며 속죄하였다. 황제가 이를 허락하며 회원진에 주둔하였고 고구려의 항복을 받은 후 군대를 돌렸다.”⁶²⁾

ㄱ) 부분에서 요수까지 진격한 병졸 가운데 기근과 약탈 때문에 죽는 병졸이 많았다고 기록하였다. 수나라 병졸들이 서로 자기편 물자를 약탈해야 했던 상황이 당시 군량 수송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양광이 611년에 다음 해 고구려 침략을 위해 하남·회남·강남 지역에서 용거 5만 승을 만들어 고양현으로 운송하라고 명령하였다.⁶³⁾ 이어서 노하·회원 2진까지 운반한 곡물이 상하면 운반한 백성에게 배상하라고 지시하였다.⁶⁴⁾ 결국 612년 제1차 고수 전쟁 당시 수나라가 물자 수송에 실패하였다.⁶⁵⁾ 고구려에 패하고 돌아온 수 양제가 612년 팔월에 여양·낙양·낙구·태원 등 창고의 곡식을 망해돈으로 운반하고 민부상서 번자개에게 탁군을 지키라고 지시하였고⁶⁶⁾ 둔전을 만드는 등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

62) 『太平實字記』 卷173 「四夷」 2·東夷2 高句麗國條, 3313쪽, “十年, 又發天下兵, 會盜賊蜂起, 所在阻絕, 軍多失期. 少至遼水, 又屬饑饉, 六軍互相掠奪, 復多疾疫, 自黃龍以東, 骸骨相屬, 止泊之處, 軍人皆積屍以禦風雨, 死者十八九, 高麗亦困斃於禦守, 遣使乞降, 囚送斛斯政以贖罪. 帝許之, 頓于懷遠鎮, 受其降款, 旋師.”

63) 『資治通鑑』 卷181 「隋紀」 5 煬帝大業七年條, 5653쪽.

64) 『資治通鑑』 卷181 「隋紀」 5 煬帝大業七年十二月己未條, 5655쪽.

65) 최진열, 「612년 고수 전쟁 전후 수나라의 병사 징발과 물자 동원」, 『한국연구』 18, 2024, 237오른쪽-246오른쪽.

66) 『資治通鑑』 卷181 「隋紀」 5 煬帝大業八年八月條, 5666쪽, “八月, 敕運黎陽·洛陽·洛口·太原等倉穀向望海頓, 使民部尚書樊子蓋留守涿郡.”

해 노력했으나 후방에서 군량 운송을 감독하던 양현감이 군량 수송을 지연하더니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많은 백성도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다.⁶⁷⁾ 양제가 군량 수송의 실패를 두 차례나 경험하였고 614년에도 육로가 막힌 운송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해군에게 군량을 운반하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내호아가 해군을 거느리고 당시 요하를 거슬러 올라갔거나 해안선에 상륙하여 가까운 비사성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비사성을 교두보로 삼아 요동성 등 요동 각지에서 고구려의 성들을 공격하는 수나라군에 군량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612년 군량 부족에 시달린 수나라 측에 도움이 되었던 반면 수성전에 의지한 고구려군에 큰 타격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612년과 613년에⁶⁸⁾ 113만 대군보다 적은 병력이 고구려를 침략한 상황에서 수송선의 병졸도 전투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612-614년 고수 전쟁 당시 수나라군이 농사철에 침략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예컨대 대업 8년 정월 계미일(612. 2. 9) 수의 제일군(第一軍)이 탁군을 출발한⁶⁹⁾ 이후 칠월 계묘일(8. 27)에 회군하였다.⁷⁰⁾ 대업 9년 정월 정축일(613. 1. 28.)에 전국의 병력을 징집하였고⁷¹⁾ 유월 경오일(7. 20)에 회

67) 최진열, 「613년 高隋 전쟁과 隋의 병사·물자 동원」, 『군사』 135, 2025, 313-319쪽.

68) 張文才가 “세 차례 皇帝의 遼澤 東征 때 모두 백여만 衆을 동원하였고, 饋運者는 그 배였다”라는 『通典』 卷7 「食貨」 7 歷代盛衰戶口 기사를 근거로 제1차 高句麗 침략 때와 같았다고 주장하였다(張文才, 『隋代軍事史』(中國軍事通史 第九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37-140쪽).

69)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八年正月壬午條, 81-82쪽, “癸未, 第一軍發, 終四十日, 引師乃盡, 旌旗亘千里.”

70)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八年七月壬寅條, 82-83쪽, “七月壬寅, 宇文述等敗績于薩水, 右屯衛將軍辛世雄死之. 九軍並陷, 將帥奔還亡者二千餘騎. 癸卯, 班師.”

71)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正月條, 83-84쪽, “九年春正月丁丑, 徵天下兵, 募民為驍果, 集于涿郡.”

군하였다.⁷²⁾ 다음 해 삼월 임자일(4. 28)에 탁군으로 출발했고⁷³⁾ 팔월 기사일(9. 12)에 회군하였다.⁷⁴⁾ 612-614년 고수 전쟁이 농번기에 일어났으므로 수나라군에 군량과 무기를 보급하러 동원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나라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킨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ㄴ) 부분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수나라군과 싸우기 위해 3년 동안 농사를 포기하고 가까운 성에 들어가 수비에 치중하는 견벽청야(堅壁淸野) 전략을 취한 결과를 서술하였다. 고구려도 농번기에 농사를 포기해야 했을 것이므로 614년 당시 충분한 군량을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에서 영양왕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내호아의 평양성 진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⁷⁵⁾ 수의 해군이 보급한 군량을 얻은 수의 병졸들이 전보다 오랫동안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었고, 이는 한정된 군량을 비축한 고구려 측에 불리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즉 수나라군이 612년과 613년 전쟁에서 군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여 고전했기 때문에⁷⁶⁾ 수 해군이 운송한 군량이 수 육군에 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즉 요수 하류에 있던 비사성 점령이 고구려에 치명타였기 때문에 고구려 영양왕이 곡사정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쟁을 그치게 되었을 것이다.

72)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九年六月庚午條, 84쪽, “庚午, 上班師.”

73)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十年三月壬子條, 87쪽, “三月壬子, 行幸涿郡.”

74) 『隋書』卷4 「煬帝紀」下 大業十年八月己巳條, 88쪽, “八月己巳, 班師.”

75) 高句麗가 2년 전인 612년에 평양성까지 침입한 來護兒의 해군을 격파하였다. 따라서 隋의 水軍만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을 것이므로 來護兒의 해군 전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76) 최진열, 「612년 고수 전쟁 전후 수나라의 병사 징발과 물자 동원」, 236-251쪽; 최진열, 「613년 高隋 전쟁과 隋의 병사·물자 동원」, 295-325쪽.

나. 645년 당의 비사성 점령과 군량 보급

2장에서 해군 총사령관인 장량의 작전 지역이 평양성에서 비사성으로 바뀌었고 장량의 해군이 군량 수송을 위해 출항했음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 작전 계획이 바뀐 배경을 살펴보자. 이세민이 칠월 신묘일(644. 8. 20)에 장작대감 염립덕 등에게 홍요강 3주에서 배 400척을 건조하여 군량을 실으라고 명령하였다. 갑오일에 태상경 위정을 궤운사(饋運使), 민부시랑 최인사를 부사에 임명하여 하북도의 식량을 운반하고 태복소경 소예에게 하남도 제주(諸州)의 식량을 운반하여 바다를 건너라고 명령하였다.⁷⁷⁾ 위정이 연주사마 왕안덕에게 운하로 물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했으나 상견하를 거쳐 노사대(盧思臺)에 이르러 전진하지 못했다. 왕안덕도 돌아와 노사대 밖으로 조거(漕渠)가 막혔다고 보고하였다. 위정이 북방의 추위와 눈 때문에 물자를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사대에 임시로 물자를 풀어놓고 다음 해 봄에 다시 물자를 옮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세민이 위희질의 보고를 받고 위정을 면관하고 장작소감 이도유에게 조운을 대신 맡으라고 명령하였다.⁷⁸⁾ 『자치통감』에서 위정이 645년(貞觀 19) 정월에 면관되었다고 기록하였으므로,⁷⁹⁾ 위정이 그 전해 가을과 겨울에 물자를 운송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도유의 물자 운송 지휘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645년 고구려를 침략한 당나라 군대의 행군 속도를 살펴보면 그 반대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적의

77)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唐太宗貞觀十八年條, 6209-6210쪽.

78) 『舊唐書』 卷77 「韋挺傳」, 2670-2671쪽; 『新唐書』 卷98 「韋挺傳」, 3903쪽.

79)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唐太宗貞觀十九年春正月條, 6216쪽.

부대가 7일만에 도착하여 하루 평균 68.6리를 행군하였으며 규정보다 2-3일 빨랐다. 이세민이 지휘한 부대의 행군기간이 35일이었다. 이는 하루에 50리를 가야하는 규정보다 약 2일 빠르지만 수레를 이용한 약 57일(56.3일)보다 약 22일이 빠르다. 이는 이적과 이세민의 당나라 군대가 행군에 필요한 최소 식량만 지니고 규정보다 빠르게 진격했음을 뜻한다.⁸⁰⁾ 이세민이 「고려반사조(高麗班師詔)」에서 개모성과 요동성 등에서 빼앗은 식량 덕분에 운송 비용을 줄였고⁸¹⁾ 끌고 간 소와 양을 식량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다.⁸²⁾ 이는 644년부터 시도한 군량 수송에 실패했으며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실토한 것이다. 『구당서』 「고려전」과 『책부원귀』, 『자치통감』에서 식량 부족 때문에 후퇴했다고 기록했으므로 이세민의 중요한 철수 이유의 하나가 군량 부족이었다.⁸³⁾ 당나라 군대가 본국으로부터 군량을 보급받지 못하고 점령한 고구려의 성에서 운반하였다.

“칠월 친미일(645. 8. 2)에 군영을 안시성 동쪽 고개로 옮겼다. 팔월 병오일(645. 9. 6)에 안시성 남쪽으로 군영을 옮겼다. 황제가 요수를 건넌 후에 모두 10번이나 군영을 옮겼지만 척후를 두었을 뿐 일찍이 참호와 진지를 만들지 않았다. 차사(車士)가 개모·요동 등 성에서 식량을 운반하였고 한 명과 한 마리의 말이 도착한 곳에서 중국에서처럼 들에서

80) 최진열,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137-138쪽.

81) 『唐大詔令集』 卷130 「蕃夷」 討伐高麗班師詔, 904쪽, “館穀十旬, 不假運糧之費; 徒兵累萬, 咸發兼乘之歌.”

82)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6190쪽, “詔曰: …… 今幸家給人足, 祇恐勞於轉餉, 故驅牛羊以飼軍. ……”

83) 최진열,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151-154쪽.

왔다. 비록 적성과 가깝더라도 고구려가 결국 감히 몰래 훔치거나 노략질하지 못하였다.”⁸⁴⁾

위의 인용문에서 차사(車士), 즉 수레를 끄는 사졸 또는 인부들이 물자를 수송한 공간을 개모성과 요동성 등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성만 언급한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안시성을 포위한 당나라 군대가 점령지의 성에서 빼앗은 군량만을 보급받았다는 증거이다. 안시성 공격이 여의치 않자 이세민이 신하들과 전략을 상의할 때 군량을 요동성에 쌓아두었다는 이적의 말⁸⁵⁾에서 당시 당나라 군대의 저장 장소가 요동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당나라의 전진기지인 영주나 회원진 등을 언급하지 않아 당나라의 치중부대가 “무사히”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구간이 개모성·요동성과 안시성 사이의 지역이었을 뿐이다. 만약 당나라의 영토인 영주나 회원진에서 안시성에서 무사히 물자를 수송했다면 『책부원귀』의 “從蓋毛·遼東等城(개모·요동 등성)” 대신 영주나 회원진 등의 지명이 들어갔어야 했다. 따라서 당 본토에서 육로로 군량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군량 보급의 실패 때문에 이세민이 장량이 지휘하는 해군에게 평양성 공격 대신 군량 수송을 지시했을 것이다. 그 근거가 해군 병력의 불일치이다. 당나라 해군 가운데 익사자를 기록할 때

84)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2·唐太宗貞觀十九年條, 1283쪽, “七月辛未, 移營安市城東嶺. 八月丙午, 移營於安市城南. 自帝渡遼, 凡十徙營, 但明斥候, 未嘗為塹壘. 車士從蓋牟·遼東等城運糧, 單人匹馬, 所至野宿如中國焉. 雖賊城, 高麗終不敢竊抄.”

85)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3쪽, “帝與勳議所攻, 帝曰: ‘吾聞安市地險而眾悍, 莫離支擊不能下, 因與之. 建安恃險絕, 粟多而士少, 若出其不意攻之, 不相救矣. 建安得, 則安市在吾腹中.’ 勳曰: ‘不然. 積糧遼東, 而西擊建安, 賊將梗我歸路, 不如先攻安市.’”

해군 총수를 7만 명이라고 기록했지만⁸⁶⁾ 전쟁 전인 644년 해군 병력을 4만 명⁸⁷⁾ 또는 43,000명⁸⁸⁾이라고 기록하였다. 후자의 병력이 30,000명 또는 27,000명이나 차이가 난다. 30,000명 또는 27,000명이 군량 수송에 동원되었다고 해석하면 인원 증가 이유가 잘 설명된다. 당령 잡령 당5조에 속(粟) 1,500곡(斛) 이하 배(艇)에 수장(水匠) 1명을, 1,500곡 이상의 배에 수장 2명을 각각 배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50곡마다 인부(丁) 1명을 배치하였고 염철(鹽鐵)과 잡물(雜物) 등을 실은 경우에도 수장과 인부를 배치하였다.⁸⁹⁾ 1,500곡(석)을 실은 배에 수장 1명과 정 30명($1\text{명} \times 1,500\text{곡} \div 50\text{곡}$)이 탔다고 가정하면 27,000명이 871척($27,000\text{명} \div 31\text{명}$), 30,000명이 968척($30,000\text{명} \div 31\text{명}$)에 각각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며, 각각 곡물 1,306,500석과 1,452,000석을 운반할 수 있었다. 반면 당나라 조운선 1척이 1,000석을 싣는다는 견해⁹⁰⁾에 따르면 1척에 수장 1명과 인부 20명이 탑승해야 하므로, 27,000명이 1,285척($27,000\text{명} \div 21\text{명}$), 30,000명이 1,429척($30,000\text{명} \div 21\text{명}$)에 각각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며, 각각 곡물 1,285,000석과 1,429,000석을 운반할 수 있었다. 이

86)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2, 1283쪽; 『唐會要』 卷95 「高句麗傳」, 2021쪽;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4쪽;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條, 6214쪽.

87)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2-5323쪽; 『冊府元龜』 卷135 「帝王部」 135 好邊功 唐太宗貞觀十八年二月條, 1503쪽;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쪽.

88)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條, 6214쪽.

89)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 校錄本 雜令卷第二十九 唐5條, 375쪽, “諸艇運粟一千五百斛以下, 給水匠一人; 一千五百斛以上, 匠二人. 率五十斛給丁一人. 其鹽鐵雜物等, 並准粟爲輕重.”

90) 王賽時, 「論唐代的造船業」, 『中國史研究』 1998-2, 1998, 76쪽.

는 352,000명의 1년 이상의 군량 소모량에 해당한다. 이 숫자가 곡물을 전투병이 없는 배에 모두 싣는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것이며, 항해를 담당한 선원이나 전투병이 승선했다면 배의 수와 운반한 곡물의 양이 줄어든다.⁹¹⁾ 비사성이 현재의 하이청시 일대로 비정된 안시성과 가까웠기 때문에 안시성을 포위한 당나라 군대에 앞에서 추산한 막대한 양의 군량을 보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획일 뿐이고 실제 상황이 달랐다.

『책부원귀』 「제왕부」 친정문⁹²⁾과 『당회요』⁹³⁾에서 당나라 해군 7만 명 가운데 수백 명이 익사했고 『신당서』 「고려전」에서 단지 수백 명만 죽었다고 기록했을 뿐⁹⁴⁾ 사망 원인을 기록하지 않았다. 모두 해군의 인명 피해만 기록했을 뿐 선박 피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책부원귀』 「장수부」 두요·장문간조에 이때 선박 피해가 있었음을 기록하였다.

“장문간이 행무주자사 평양도행군총관이었다. 정관 19년에 요(遼, 고구려를 지칭-필자)를 정벌할 때 역주에 머물렀다. 문간이 바다를 건넜으나 배가 다수 뒤집혔다. 조서를 내려 재촉했으나 배가 멈추어 움직일 수 없어 작전 지역에 가지 못했음을 문제 삼아 장문간을 참하였다.”⁹⁵⁾

91) 최진열, 「고당 전쟁과 당나라 해상 물자 보급의 한계」, 『해양역사문화』 13, 2025, 19-20쪽.

92)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쪽, “張亮水軍七萬人泛海, 遭風溺死者數百人.”

93) 『唐會要』 卷95 「高句麗傳」, 2021쪽, “張亮水軍七萬人, 沉海溺死數百人.”

94)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3-6194쪽, “船師七萬, 物故亦數百.”

95) 『冊府元龜』 卷445 「將帥部」 106 逗撓·張文幹條, 5021쪽, “張文幹行撫州刺史·平壤道行軍總管. 貞觀十九年, 征遼, 廻次易州. 文幹以渡海多覆舟舫, 詔迫逗遛不赴, 斬之.”

『책부원귀』 이외에 『신당서』 「태종기」에만 “[십일월] 계미일(645. 12. 12)에 평양도행군총관 장문간이 죄를 지어 주살되었다”⁹⁶⁾라고 기록하였고 주살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다. 두 사서를 종합하면 장문간이 장량이 출발한 내주와 다른 역주에서 출발했으며 계획된 작전명령대로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도착하지 못해 처벌받았다. 그런데 이세민이 장문간의 함대에 빨리 오라고 재촉한 대목이 주목된다. 군대에서 작전 시간을 어기는 것이 중죄이지만, 당시 개모성과 요동성을 점령하고 안시성을 포위한 당나라 군대가 굳이 장문간의 해군 병력까지 전투에 투입할 정도로 병력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세민이 장문간 함대가 빨리 오라고 재촉한 이유가 배에 실은 군량과 전쟁물자 때문일 수밖에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당나라 함대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그래도 다수의 배가 뒤집혀 침몰했다는 단서로 당 해군의 피해를 추산할 수 있다. 40,000명 또는 43,000명의 해군을 지휘한 평양도행군대총관 장량 아래에 총관으로 임명된 염인덕·유영행·장문간·방효태·정명진 5명⁹⁷⁾이 같은 수의 해군을 지휘했다면 장문간이 거느린 8천 명 또는 8,600명의 해군 대부분이 피해를 봤다.⁹⁸⁾ 당령 잡령 5조에 따라 장량의 해군과 함께 고구려로 향해한 871척에 1,306,500석, 968척에 1,452,000석 또는 1,285척에 1,285,000석, 1,429척에 1,429,000석을 실었으므로

96)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十九年十一月癸未條, 44쪽, “癸未, 平壤道行軍總管張文幹有罪, 伏誅.”

97)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98) 최진열,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153-154쪽; 최진열, 「645년 高唐 전쟁과 唐兵의 경제적 손실」, 『비교중국연구』 5-2, 2024, 25-26쪽.

1/5의 장문간 부대가 피해를 입었다면 약 142척에 261,300석 또는 약 194척에 290,400석, 257척에 257,000석, 약 286척에 285,800석의 대부분을 잃었을 것이다. 즉 장문간 함대의 손실로 당 해군이 병력과 곡물의 약 20%를 잃었다. 원나라의 경우, 장강 하류에서 해안선을 따라 가던 배가 자주 파손되어 1286년 최고 24.99%에 달했던 손실율이 은명략(殷明略)이 개발한 직항로를 택한 1293년 이후 선박 전복 사고가 줄어들어 손실률이 2%로 떨어졌다.⁹⁹⁾ 당나라가 화북지방의 해안이나 산둥반도에서 고구려 땅까지 발해만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거나 산둥반도에서 마오다오군도를 통해 랴오둥반도로 향하는 항로로 군량을 운반했지만, 645년 장문간 함대가 발해만의 얕은 수심에 있는 암초 등 장애물에 걸려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¹⁰⁰⁾ 따라서 당나라 군대가 해군이 옮긴 군량을 보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¹⁰¹⁾이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장문간 함대의 침몰로 인한 군량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세민이 건안성 공격을 택했다. 『책부원귀』에서 장량이 고구려 군대와 건안성에서 싸웠다고 기록되었다.¹⁰²⁾ 『자치통감』에서도 장량의 군대가 645년 유월에 건안성을 지나다가 고구려 군사의 습격을 받았으나 장량이 침착하게 대처하여 군사들이 전열을 정비하였고 총관 장금수 등이 복을 올리며 병사들을 지휘하여 고구려군을 격파했다고 기록하였다.¹⁰³⁾ 두 사서에서 장량

99) 孫光圻, 『中国古代航海史』, 北京: 海洋出版社, 2005, 287-289쪽 및 293-294쪽.

100) 최진열, 「고당 전쟁과 당나라 해상 물자 보급의 한계」, 20-23쪽.

101)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100-101쪽.

102) 『冊府元龜』 卷135 「帝王部」 135 好邊功 唐太宗貞觀十八年條, 1503쪽, “後張亮與高麗再戰於建安城下, 皆破之.”

103)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唐太宗貞觀十九年六月條, 6227쪽, “張亮

이 건안성을 공격한 이유나 의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고구려의 건안성이 한대의 요동군 평곽현(平郭縣)¹⁰⁴⁾이었고 염관(鹽官)과 철관(鐵官)이 있었기 때문에¹⁰⁵⁾ 소금과 철이 풍부한 지역이었다.¹⁰⁶⁾ 즉 건안성을 점령하면 안시성을 포위한 당나라 군대에 소금과 무기의 재료인 철을 보급할 수 있었다. 농사의 이로움이 있는 비옥한 지역이었던 패북주(현재의 遼寧省 瓦房店市 일대)¹⁰⁷⁾가 건안성 서남쪽 지역에 있었다. 이는 건안성 주변 지역에 비옥한 농토가 있었다는 뜻이다.¹⁰⁸⁾ 따라서 건안성과 그 남쪽의 비옥한 지역을 점령하면 안시성 일대의 당나라 군대에 군량과 소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즉 당 해군의 사비성(비사성) 점령이 요수 하류에 상륙한 후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고 개모성, 백애성(백암성), 요동성, 안시성을 공격하는 당나라 군대에 군량을 보급하는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軍過建安城下，壁壘未固，士卒多出樵牧，高麗兵奄至，軍中駭擾。亮素怯，踞胡床，直視不言，將士見之，更以為勇。總管張金樹等鳴鼓勒兵擊高麗，破之。”

104) 『翰苑』, “高麗記曰: ‘平郭城, 今名建安城.’”

105) 『漢書』 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平郭縣條細注, 1626쪽, “有鐵官·鹽官.”

106) 최진열, 「前燕 ‘昌黎時代’ (289-350) 遼東·遼西 經濟」, 『東洋史學研究』 159, 2022, 124-126쪽.

107) 『大元一統志』 卷2 遼陽等處行中書省·遼陽路古跡·復州條, “廢復州, 本遼遷民縣, 屬黃龍府. 後置復州, 號永寧軍節度. 改縣曰永寧, 後又更為永康, 省豐水·扶羅入焉. 金因之. 所居皆漢民. 地甚肥沃, 有耕稼之利.”; 『元一統志』 卷2 遼陽等處行中書省·遼陽路古跡·廢復州條, 189쪽.

108) 최진열, 「前燕 ‘昌黎時代’ (289-350) 遼東·遼西 經濟」, 113쪽; 同氏, 「高句麗의 농업-토지 비옥도와 인구·곡물 생산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6, 2023, 143-144쪽.

5. 결론

필자가 처음에 평양성 공격을 명령받았다가 비사성을 공격한 수나라와 당나라 해군의 동선에 주목하였다. 조선후기 사신들이 한반도 북부와 랴오둥반도, 산둥반도를 항해한 조천록을 검토하면 산둥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랴오둥반도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여순구였고 현재 비사성으로 비정된 대흑산산성이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신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해군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지 않았다. 『대원일통지』, 『대명일통지』, 『독사방여기요』, 『성경통지』에서 사비성, 즉 비사성이라고 기록한 요하 하류, 현재의 랴오닝성 안산시에 속한 하이청시 일대가 비사성이라고 기록하였다. 수와 당 해군의 동선을 보면, 비사성이 적군이 상륙하여 병참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먼저 점령해야 할 교두보에 해당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수나라가 612년부터 3년 동안 농사철에 고구려를 침략했기 때문에 수나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군량 준비에 불리하였다. 내호아가 614년에 요수 하류에 상륙하여 비사성을 점령하고 요동성 등을 공격하는 수나라군에 군량을 보급하자 고구려가 버틸 수 없었고 곡사정을 수나라로 보내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냈다.

당 태종이 군수물자 수송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을 공격하기로 계획되었던 해군에 군량을 싣고 요수 하류에 상륙하라고 작전을 바꾸었고 요수 하류에 있던 비사성을 점령했지만, 물자 수송 도중 일부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심했다.

그래서 계획했던 군량을 당 육군에 보급할 수 없었던 장량의 부대가 곡물 생산량이 많은 건안성을 공격해야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당나라 군대가 군량 부족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은 비사성의 전략적 가치와 입지를 재평가하고 비사성이 라오닝성 하이청시 일대에 있었음을 환기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비사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이는 훗날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¹⁰⁹⁾

109) 喬鳳岐가 고고학 발굴 결과를 재검토하여 卑沙城 위치를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62-63쪽). 필자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한다. 익명의 심사위원이 비사성이 요하하류의 하이청시 일대이면 같은 영성자산성으로 비정되는 안시성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안시성의 위치에 대하여 현재의 海城市 營城子산성으로 보는 견해(金毓黻, 『東北通史』, 中京: 五十年代出版社, 1943; 譚其驤,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이외에 海龍川山城(王禹浪·王文軾, 「大石橋海龍川山城考察報告」, 『黑龍江民族叢刊』 2009-3, 2009), 營口市 靑石嶺高句麗山城(王禹浪·王文軾, 「營口地區的高句麗山城」, 『哈爾濱學院學報』 32-9, 2011, 9 오른쪽-10왼쪽)으로 비정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내의 학설 정리는 임기환, 「고구려-당 전쟁의 전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7세기 국제정세와 고구려-수·당 전쟁』, 동북아역사재단, 2023, 231-234쪽 참조. 현재 安市城의 위치에 설이 분분한 상황에서 卑沙城과 安市城의 관계 따지는 작업이 시기상조이다. 두 성이 같은 海城市에 위치했다고 하면, 오히려 李世民이 군량을 배로 실어 운반하려는 의도로 張亮에게 卑沙城을 공격하게 했다는 필자의 견해가 타당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漢書』(班固 撰, 顏師古 注, 北京: 中華書局, 1962).
- 『隋書』(魏徵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3).
- 『舊唐書』(劉昫 等修, 北京: 中華書局, 1975).
- 『新唐書』(歐陽修宋祁 撰, 北京: 中華書局, 1975).
- 『明史』(張廷玉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87).
- 『資治通鑑』(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北京: 中華書局, 1956).
- 『冊府元龜』(王欽若 等編纂, 周勣初 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 『三國史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itemId=sg>).
- 『通典』(杜佑 撰, 王文錦 等 點校, 中華書局, 1988).
- 『唐會要』(王溥 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唐大詔令集』(宋敏求 編, 北京: 中華書局, 2008).
-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鈐履課題組 校證, 北京: 中華書局, 2006).
- 『太平寰宇記』(北京: 中華書局, 2007).
- 『元一統志』([元] 李蘭吟 等撰, 趙萬里 校輯, 北京: 中華書局, 1966).
- 『大元一統志』(遼陽金毓黻·沈陽安文溥 同輯, 遼海叢書本).
- 『大明一統志』(明 李賢等 奉敕撰, 天順五年御製序刊本).
- 『遼東志』(劉立強·劉海洋 主編, 北京: 科學出版社, 2016).
- 『全遼志』(李輔 纂修, 韓鋼 點校, 北京: 科學出版社, 2016).
- 『讀史方輿紀要』(顧祖禹 撰, 賀次君·施和金 點校, 中華書局, 2005).
- 『盛京通志』(阿桂 等纂修, 瀋陽: 遼海出版社, 1997).
- 『1623년의 북경 외교-인조 책봉주청사 이민성의 조천록(朝天錄)-』(이민성 지음, 이영춘·정진석·강한규·원재연·이미선 옮김, 서울: 대원사, 2014).
- 『국역 신열도 조천시문견사건계』(신열도 지음, 신로사 옮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3).
- 『조천록』(조규익, 『17세기 국문 사행록 죽천행록』, 서울: 박이정, 2002).

2. 연구서

국문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東潮田中俊明, 동북아역사재단 역,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2008.

중문

喬鳳岐, 『隋唐皇朝東征高麗研究』,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10.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五冊(隋唐五代十國時期),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82.

孫光圻, 『中国古代航海史』, 北京: 海洋出版社, 2005.

臧勵和 等著, 『中國古今地名大辭典』,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35.

張錫彤王鍾翰賈敬顏郭毅生陳連開,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3. 연구논문

국문

孫德連, 서길수 옮김, 「비사성(卑沙城)」, 『高句麗研究』 9, 2000, 407쪽(原載 孫德連, 「卑沙城」, 『金州博物館館刊』 1990-1, 1990).

여호규,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2000.

우성민, 「中國歷史地圖集에 표기된 高句麗 卑沙城에 대한 檢討」, 『中國學研究』 105, 2016.

윤명철, 『만주에서 고구려에게 길을 묻다』, 대원사, 2011.

최진열, 「前燕 ‘昌黎時代’(289-350) 遼東·遼西 經濟」, 『東洋史學研究』 159, 2022.

——,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 「高句麗의 농업-토지 비옥도와 인구·곡물 생산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6, 2023.

- ,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 , 「645년 高唐 전쟁과 唐兵의 경제적 손실」, 『비교중국연구』 5-2, 2024.
- , 「612년 고수 전쟁 전후 수나라의 병사 징발과 물자 동원」, 『한국연구』 18, 2024.
- , 「613년 高隋 전쟁과 隋의 병사물자 동원」, 『군사』 135, 2025.
- , 「고당 전쟁과 당나라 해상 물자 보급의 한계」, 『해양역사문화』 13, 2025.
- , 「고구려-수당 전쟁과 고구려의 요서-7세기 고구려의 요서 영유와 요서 지역의 전략적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31, 2026.
- 許明綱, 徐吉洙 옮김, 「대련지구(大連地區)에 있는 4개의 고구려 산성에 대한 소고」, 『高句麗研究』 9, 2000(原載 許明綱, 「大連地區高句麗四座山城略考」, 『博物館研究』 1996-1, 1996).

중문

- 魯西奇, 「隋唐五代時期北方沿海港口與近海航路」, 鄭永常 主編, 『東亞海域網絡與港市社會』, 臺北: 里仁書局, 2015.
- 汶漢, 「卑沙城」, 『大連文物』 1987-1, 1987.
- 本偉, 「金縣大黑山」, 『遼寧大學學報』 1985-1, 1985.
- 王寶時, 「論唐代的造船業」, 『中國史研究』 1998-2, 1998.
- 王守春, 「卑奢城卑沙城與金州城的相關歷史地理問題」, 孫進己 主編, 『東北亞歷史地理研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4.
- 王天姿, 「高句麗遼東安市城建安城研究」, 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2018.5.
- 周運中, 「隋唐五代北方海港與近海航路新考」, 『中國港口博物館館刊專輯』 2018-2(總第7期), 2018.

〈Abstract〉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Sui and Tang occupation of Beisha Castle

- Focusing on discrepancies in names and location records -

Choi, Jin-yeoul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the reasons and strategic value of the Sui and Tang Dynasties' attacks on Bisha Castle.

The Daeheuksan(Daheishan in Chinese) Mountain Fortress, which is currently believed to be Bisa-seong, was located far from the coast and was not in a strategically important location that could defend the navy without cannons. In the *Daewon Il Tong Ji*, *Daemyeong Il Tong Ji*, *Doksa Bang Yeo Gi Yo*, and *Seonggyeong Tong Ji*, the historical geography books in pre-modern China, the area of Haicheng city, which is currently part of Anshan city in Liaoning Province and the lower reaches of the Liao River, was recorded as Bisa Castl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war situation in which the Sui and Tang Dynasties occupied Bisa Castle. The reason Goguryeo tried to end the war with the Sui Dynasty when Lai Hu'er, naval admiral who attacked Goguryeo's Pyongyang Castle in 612 and was defeated, captured Bisha Castle in 614 was because his navy could supply military supplies to the Sui Yang Emperor's army attacking Liaodong Castle and the surrounding areas, suffered from a shortage of provisions in 612 and 613. Because the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

was not easy, Li Shimin, the second emperor of Tang dynasty called Taizong, changed the original plan in 644 to have Zhang Liang's navy, which was planned to attack Pyongyang, load military supplies and land on the lower reaches of the Liao River. After landing on the lower reaches of the Liao River, he captured Bisa Castle. Zhang Liang's corps, unable to supply the planned military provisions to the Tang army—largely because the Tang navy had suffered severe losses, including damage to several ships during transport—attempted to attack Geonan Fortress, a region with high grain production, but failed.

Keywords : The Goguryo-Sui War, The Goguryo-Tang War in 645, Bisaseong, Goguryo, Daheishan hillfort, Haicheng city in Liaoning province, Lüshunkou, Maritime transport of military provisions, Tang Dynasty's land transport failure

원고투고일 : 2026.07.08. 심사수정일 : 2026.08.26. 게재확정일 : 2026.09.09.